

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8년 11월 17일

교사 : 김은아

- 목표 :
1. 여러 자서전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2. 형용사, 판단, 인식, 선택, 순리의 문법 문제를 풀 수 있다.
 3. 조선에 관련된 읽기 자료를 읽고 이해할 수 있다.
 4. 8급 한자의 뜻을 알고 읽을 수 있다,
 5. 관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국어6-2 나, 초등한자1,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100대 민족문화상징자료, TOPIK중급

교시	수업내용
1교시 9:30-10:20	숙제 확인 및 쪽지시험(한자,관용어, 읽기자료)
2교시 10:20-11:20	자서전 읽고 이해하기
점심 11:20-11:40	
3교시 11:40-12:00	문법 수업(형용사,판단,인식, 선택, 순리)
4교시 12:00-12:40	동시대회 참가 및 시상식

숙제 (다음 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1. 한자 2. 관용어 3.읽기 자료(조선 관련) 4. 어휘

<자서전> 공부할 어휘

1. 봉양 :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웃어른을 받들어 모심.
2. 구럭 : 새끼를 드물게 떼서 물건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든 그릇.
3. 악정 :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는 잘못되게 하는 정치
4. 전답 : 밭과 논
5. 교정 : 학교의 마당이나 운동장
6. 지열 : 햇볕을 받아땅 표면에서 나는 열

2018년 11월 17일

한라반 쪽지시험

이름 :

▶ 아래 문장의 한자를 읽어 보세요.

1. 外家(가) : 어머니의 친정
2. 場外(장) : 어떠한 곳의 바깥
3. 門中(중) : 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
4. 正門(정) : 건물의 안쪽 면에 있는 문
5. 中小(소) : 규모나 수준 등이 중간 정도인 것과 그 이하인 것
6. 手中(수) : 손 안, 무엇을 손에 넣음
7. 長女(녀) : 집안의 맏딸
8. 校長(교) : 학교를 대표하는 어른

▶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보기>에서 골라 답하세요.

1. '어질고 지식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을 무엇인가요?
2. (1번 답)가 되려는 사람은 크게 두가지 일을 해야 했는데, 첫째는 _____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_____길에 오르는 것이에요.
3. (1번 답)는 공부를 해서 도리를 깨우치면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_____를 봤어요. 과거에서 급제를 한 선비들은 _____가 됐어요.
4. 이것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에요.
5. 이것은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에게 올리는 제사를 말해요.
6. 조선 시대 가장 대표적인 도자기는 _____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을 강조한 이것에는 조선 시대 선비 정신이 담겨있어요.

<보기>

학문, 과거, 벼슬, 관리, 선비, 종묘, 백자, 종묘 제례

17 귀가 가렵다 18 얼굴(이) 두껍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귀가 가렵다 귀가 아프다 얼굴이 두껍다 얼굴을 내밀다

- 1 가: 내일까지 그 책을 꼭 가져 와.
나: 알았어.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_____.
- 2 가: 크리스 씨가 수료식에도 _____ 지 않았어요.
나: 아마 사정이 있어서 고향으로 돌아갔나 봐요.
- 3 가: 정호가 커닝을 해서 시험을 잘쳤다고 해. 그래서 장학금도 받는데.
나: 정말? 정호가 그렇게 _____ 사람인 줄 몰랐어.
- 4 가: 일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면 재채기가 나온다고 해요.
나: 그래요? 재미있네요. 한국에서는 _____ 라고 말해요.
- 5 가: 저 사람이 민수 씨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사람이에요?
나: 네, 맞아요. 얼마나 _____ 사람인데요.
- 6 가: 왕방 씨 남자 친구가 잘생겼다고 _____ 게 들었어.
나: 그랬어? 한번 만나 보고 싶네. 어떤 사람이야?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문제

1~3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아침에는 커피를 진하게 마시지만 저녁에는 () 마십니다.
 ① 쉽게 ② 연하게 ③ 거칠게 ④ 무겁게
2.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했다.
 ① 훌륭해 ② 창피해 ③ 신기해 ④ 단순해
3. 여자 친구가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난 후에 후회해도 ().
 ① 확실했다 ② 신중했다 ③ 틀림없다 ④ 소용없다

4~6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십시오.

4. 십 년 전에는 외제차 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흔해졌다.
 ① 귀해졌다 ② 많아졌다 ③ 약해졌다 ④ 화려해졌다
5.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아쉬웠다.
 ① 경솔했다 ② 어색했다 ③ 섭섭했다 ④ 소중했다
6. 선생님이 학생을 지나치게 혼내자 그 학생은 울면서 나가 버렸다.
 ① 심하게 ② 새롭게 ③ 안타깝게 ④ 솔직하게

7~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반대인 것을 고르십시오.

7. 패스트푸드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니까 자주 먹지 않도록 하세요.
 ① 나쁜 ② 딱딱한 ③ 이로운 ④ 정확한
8. 손가락이 가늘어서 이 반지는 내게 너무 크다.
 ① 길어서 ② 굵어서 ③ 얇아서 ④ 좁아서
9. 매일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잠이 부족하다.
 ① 중요하다 ② 편리하다 ③ 만족하다 ④ 충분하다

연습

1~4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밑줄 친 부분을 바꾸십시오.

-(으)ㄴ/는 셈이다

1. 그 사람은 매일 아침 다섯 시에 일어나니까 부지런한 것 같다.

⇒

2. 이번 시험에서 90점을 받았으니까 잘 본 것 같다.

⇒

-(으)ㄹ 만하다

3. 이 책은 어렵지만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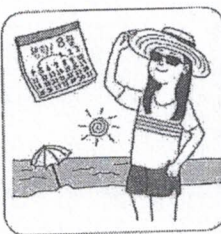
⇒

4. 냉장고를 산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 사용할 수 있다.

⇒

5~6 다음 그림을 보고 제시된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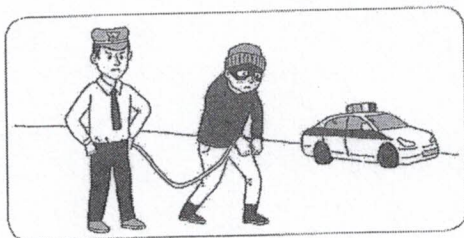
5.



든지

⇒

6.



-(으)ㄴ/는 법이다

⇒

7~10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보기 -(으)ㄴ/는 셈이다 -(으)ㄹ 만하다 든지 -(으)ㄴ/는 법이다

7. 아직은 _____ 다음 주부터 더 추워진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참다)
8.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_____. (생기다)
9.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_____ 대학원에 가려고 해요. (하다)
10.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결국 비싸게 _____. (사다)

11~14 다음 <보기>의 문법을 이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으)ㄴ/는 셈이다 -(으)ㄹ 만하다 든지 -(으)ㄴ/는 법이다

11. 가: 민수 씨, 한국 영화 중에서 뭐가 재미있어요?
나: _____.
12. 가: 경아 씨, 이번 휴가 때 뭘 하고 싶으세요?
나: _____.
13. 가: 왕녕 씨가 이번에 한국어능력시험에서 6급을 받았다고 하네요.
나: 열심히 노력하면 _____.
14. 가: 어제 남자 친구랑 데이트 했나요?
나: 같이 공부했으니까 _____.

15~20 다음 문장을 연결하십시오.

- | | | |
|---------------------|---|--------------------|
| 15. 친구의 이야기를 | • | • 훨씬 예뻐 보이네요. |
| 16.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 • | • 자주하는 편이네요. |
| 17. 두 사람이 | • | •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됐다. |
| 18. 화장을 하니까 | • | • 외국인도 먹을 만해요. |
| 19. 일 주일에 세 번 운동하니까 | • | • 할지 여행을 할지 고민이다. |
| 20. 그 음식은 별로 맵지 않아서 | • | • 헤어질 리가 없어요. |

문제1

1~3 다음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가: 이삿짐 정리는 다 했어요?

나: 네. 책장에 책만 꽂으면 되니까 ().

① 끝나려나 봐요

② 끝난 셈이에요

③ 끝났을 뿐이에요

④ 끝나기는 했거든요

2.

가: 점심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나: 조금만 더 가면 () 식당이 있으니깐 거기서 먹도록 합시다.

① 먹을 뿐인

② 먹을 듯한

③ 먹을 만한

④ 먹을 뻔한

3.

가: 내일 떠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얼굴을 못 보겠네요. 정말 아쉬워요.

나: 제가 어디에 ()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마세요.

① 가려면

② 가도록

③ 가던데

④ 가든지

4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4. ① 이 정도면 거의 다 한 셈이에요.

② 이 자동차는 제가 10년 동안 타 갔어요.

③ 음식을 적게 먹는 습관이 몸에 이로운 법이에요.

④ 그 분은 틀림없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일 거예요.

5~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5.

가: 그 사람처럼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흔하지 않을 거예요.

나: 그러게요. 저같이 평범한 축에 드는 사람에게는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① 평범한 편인

② 평범할 줄 아는

③ 평범하기 마련인

④ 평범하기는 틀린

6.

가: 아직도 숙제가 많이 남았어요?

나: 아니요, 이제 이것만 쓰면 되니까 다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① 한 셈이에요

② 할 모양이에요

③ 하려던 참이에요

④ 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7.

피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① 떨어지는 법이다

② 떨어지기 때문이다

③ 떨어지는 척한다

④ 떨어지는 모양이다

8.

이력서는 메일로 보내시거나 우편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① 보내시든지

② 보내시던지

③ 보내는 통에

④ 보내실 텐데

9.

가: 친구 말이 농담인 것을 알지만 자꾸 들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 당연하지요.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화가 나는 법이에요.

① 나고자 해요

② 난 셈이에요

③ 나기 마련이에요

④ 나게 할 뿐이에요

10. 다음을 읽고 ()에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0.

가: 요즘은 그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로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림을 () 청각을 이용해서 상상력을 펼칠 수도 있겠네요?

① 보니까

② 봐 봤자

③ 보는 탓에

④ 볼 뿐만 아니라

1~5

- 가구 위치를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도 집이 훨씬 ().

① 그런은 말이다

② 넓어 보인다

③ 넓은가 보다

④ 넓어야 한다

- 이 제품이 좀 () 품질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① 비싼 탓에

② 비싼 세미나

③ 비싼 데다가

④ 비싼 대신에

- 가: 이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나: 약을 () 1시간 동안은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① 드시고 나니

② 드시고 보니

③ 드시고 나서

④ 드시고 보면

- 낮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 초등학교 동창이었다.

① 알고 나서

② 알고 나면

③ 알고 보면

④ 알고 보니

- 가: 이 시간에 길이 막히다니 정말 이상한데요.

나: 그러게요, 여기는 사고가 나지 않는 한()말이에요.

① 막힐 텐데

② 막히곤 했는데

③ 막힐 리가 없는데

④ 막히지 않았으면 하는데

6~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고르십시오

- 7.

8~10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십시오.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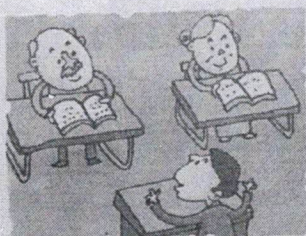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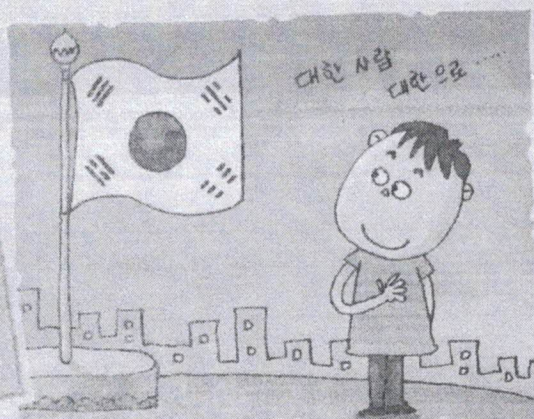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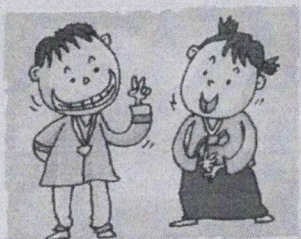
큰 대

韓

나라 이름 한



할아버지는 노인 大學(대학)에 다니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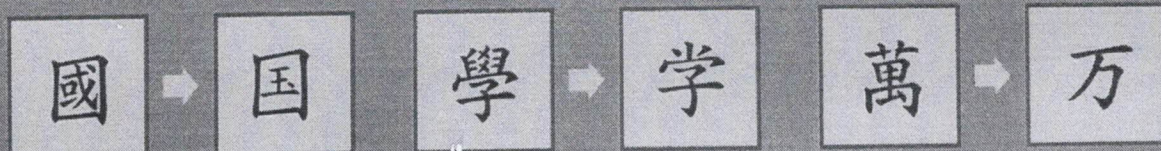
韓복은 우리 나라 고유의 옷입니다.

생각은 통통!
한자는 쓱쓱!



간단하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 모양이 복잡한 한자는 쉽게 간단히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나라 국

배울 학

일만 만

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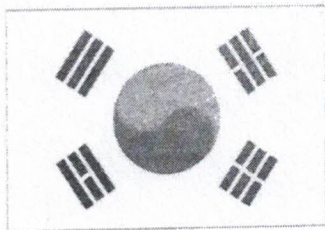
나라 국

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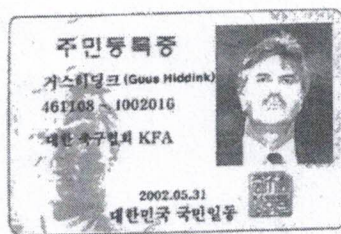
백성 민



活用
어디에 쓰일까요?



태극기는 우리 나라의 國기입니다.



만 18세가 되면 주民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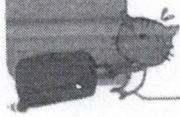
순서를
알아봅시다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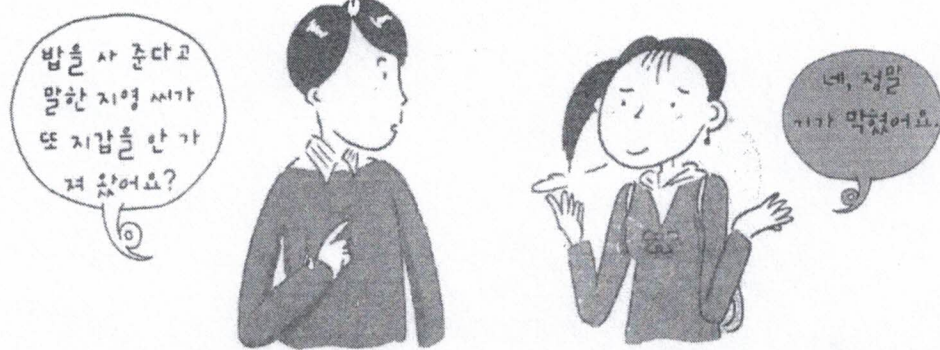
韓

國

民



대화



- 아사코: 어제 지영 씨가 매운탕을 사 준다고 해서 시내에 갔다 왔어요.
 민 수: 혹시 육쟁이 할머니 식당에 갔어요? 그 집 매운탕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아사코: 네, 맞아요. 매운탕은 맛있었는데 정말 황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께 물 좀 더 달라고 하니깐 갑자기 나한테 욕을 하셨어요.
 민 수: 하하하, 그 할머니는 항상 그러세요. 할머니께서 욕을 한 것은 아사코 씨가 좋아서 그런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조금 놀랐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서 자주 가요.
 아사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매운탕을 다 먹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지영 씨가 또 지갑을 안 가져 온 거예요.
 민 수: 그래서 아사코 씨가 또 돈을 낸 모양이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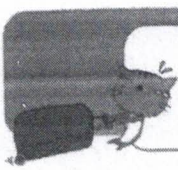
* 기(가) 막히다: ① 어떤 일이 너무 놀랍고 황당하다 ② 매우 대단하다

활용예문

- ▶ 비가 오는데 우산도 없고 집에 갈 차비도 없고 참 기막히는 하루다.
- ▶ 기가 막히게 멋진 차를 새로 샀어요.
- ▶ 가: 그 사람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
- 나: 나도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

새 어휘와 문형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매운탕 | <input type="checkbox"/> 육쟁이 | <input type="checkbox"/> 기 | <input type="checkbox"/> 막히다 | <input type="checkbox"/> 황당하다 | <input type="checkbox"/> 욕하다 |
| <input type="checkbox"/> 계산(을) 하다 | <input type="checkbox"/> 차비 | <input type="checkbox"/> -모양이다 | | | |



함께해요



기막힌 사연을 소개합니다. 다음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20년 전 어느 산부인과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두 아이가 바뀌는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는 각각 서로 다른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한 명이 우연히 부모님과 자신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막힌 사실에 가족들은 뒤늦게 산부인과에 남아 있는 기록을 찾아보았고 그 결과 20년 전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보〉



위의 신문 기사처럼 2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이 알고 보니 친부모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20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살겠다.

그 이유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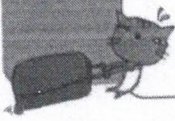
• 나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에게 돌아가겠다.

그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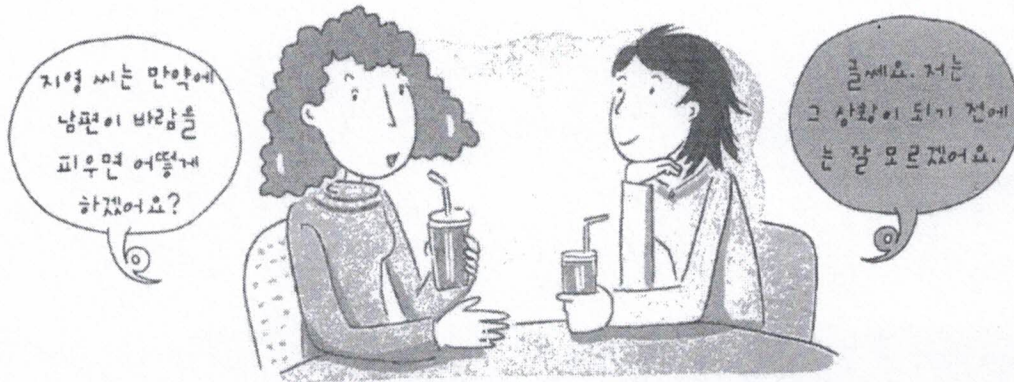
-
-

한 걸음 더

- ▶ 기(가) 차다(=) 노래를 정말 기차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 ▶ 기(가) 죽다(☹) 기세가 꺾여 약해지다
공부 좀 못 한다고 기죽지 마. 그 대신 너는 운동은 잘하잖아.
- ▶ 막히다☞
 - 하수구가 자주 막혀서 큰일이에요.
 - 주말이라서 길이 막힐 테니까 지하철을 탑시다.
 - 창문을 좀 여는 게 어때?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대화



지영 씨는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요. 저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제 니: 지영 씨, 만약에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 영: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제 니: 아침에 드라마를 봤는데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하는 내용이었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서요.

지 영: 글쎄요. 저는 그 상황이 되기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화가 나겠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 니: 나를 배신한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지 영: 그건 서로 노력하기에 달려 있겠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니 씨는 아직 남자 친구도 없잖아요.

제 니: 호호호, 맞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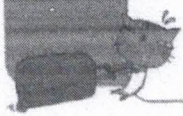
※ 바람(을) 피우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귀다

활용예문

- ▶ 제 남편은 절대로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에요.
- ▶ 배우자가 있지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는 내용의 영화가 많다.
- ▶ 가: 그 배우가 지난달에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 나: 네,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있어요.

새 어휘와 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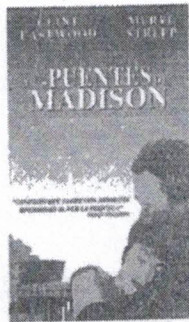
- | | | | | | |
|-------------------------------|-------------------------------|-------------------------------|------------------------------------|-------------------------------|-------------------------------|
| <input type="checkbox"/> 피우다 | <input type="checkbox"/> 용서하다 | <input type="checkbox"/> 절대로 | <input type="checkbox"/> 상황 | <input type="checkbox"/> 배신하다 | <input type="checkbox"/> 노력하다 |
| <input type="checkbox"/> 심각하다 |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 <input type="checkbox"/> 이혼하다 | <input type="checkbox"/> -기에 달려 있다 | | |



함께해요



다음을 읽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는 단 한 번 찾아오는 아름다운 사랑과 그 추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가족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다.

그 이유는?

-
-

• 가족을 선택하고 사랑을 포기한다.

그 이유는?

-
-

한 걸음 더

▶ 바람(이) 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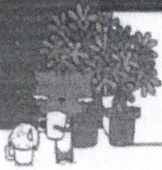
닭 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난다는 말이 사실이에요?

▶ 바람(을) 넣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하다
열심히 일하는 민수에게 놀러 가자고 바람 넣지 마세요.

▶ 피우다

-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 좀 해.
-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기가 막히다

기가 죽다

바람을 피우다

바람을 넣다

1 가: 요즘 설악산은 단풍이 들어서 _____ 게 아름답겠지요?

나: 그럴 거예요. 우리도 어서 단풍 구경 가요.

2 가: 시험에 또 떨어지다니 난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

나: 너무 _____ 지 마.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3 가: 소현 씨가 이번 여행을 안 가겠대요.

나: 네? 같이 가자고 우리에게 _____ 사람이 안 간다니 말도 안 돼요.

4 가: 준기 씨는 혹시 _____ 적이 있어요?

나: 글썄요. 비밀이에요.

5 가: 민수가 약속을 또 잊어버렸어요. 정말 _____.

나: 그만 화 푸세요.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6 가: 그 친구가 _____ 줄 정말 몰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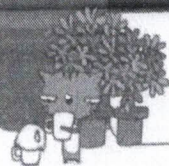
나: 나도 그래. 두 사람이 결혼할 줄 알았는데 마음이 변했을까?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기(가) 막히다 / 바람(을) 피우다



다음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선희: 제 여동생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해요.

요코: 무슨 일이 있어요?

선희: 동생 남자 친구가 얼마 전에 제대
했는데 바람을 피운 모양이에요.
그 남자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동
생이 보낸 편지가 수 백 통이 넘을 거예요.

요코: 기가 막히네요. 2년을 넘게 기다린 여자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희: 동생 남자 친구가 기가 막히게 잘생겨서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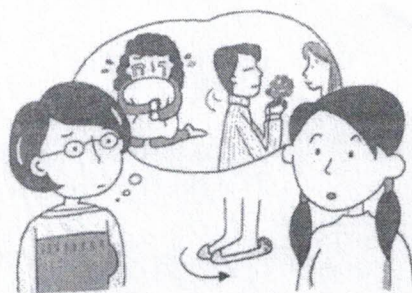
요코: 그랬군요. 선희 씨가 동생을 잘 위로해 주세요.

선희: 네, 고마워요. 그런데 요즘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사람보다 군화를 거꾸
로 신는 사람이 더 많대요.

요코: 신발을 왜 거꾸로 신어요?

선희: _____

요코: _____



위의 대화문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세요.

- 1 선희의 여동생은 왜 울어요?
- 2 '고무신을 거꾸로 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 3 여러분이 선희의 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 어휘

☐ 제대하다 ☐ 군대 ☐ 따라다니다 ☐ 위로하다 ☐ 고무신 ☐ 거꾸로 ☐ 군화

<수양대군과 어린 단종>

1. 수양 대군의 결심

“과인은 경들만 믿으니 세자를 잘 보살펴 주시오.”

문종이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개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문종은 세종에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약해 앞날이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이럴 때 황희만한 신하가 없으니 걱정이구나.’

문종은 명재상 황희를 그리워하며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남지, 우의정 김종서를 불러 똑같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두 해 만에 열두 살 난 세자를 두고 죽고 말았어요.

문종에 이어 왕위에 오른 단종은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나 어렸어요. 그래서 정승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어요. 나이 어린 단종을 대신해 정승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처리하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거리는 관리들에게 벼슬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단종은 나이가 너무 어려 어떤 자리에 누가 적당한지를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정승들은 벼슬을 줄 사람의 이름에 누런 표시를 해서 왕에게 올렸고, 단종은 그 표시대로 벼슬을 주었어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쪽에서는 정승들에게 불만을 쏟아 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승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물을 바치기도 했어요.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이 임금을 제쳐 두고 정승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니 잡음이 끊이질 않는구나.”

정승들이 나라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조용히 지켜만 보던 수양대군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선은 정승들의 나라입니다.”

수양 대군과 마주 앉은 한명회와 권람이 수양 대군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어요.

‘전하, 어찌하여 이 숙부의 마음을 몰라 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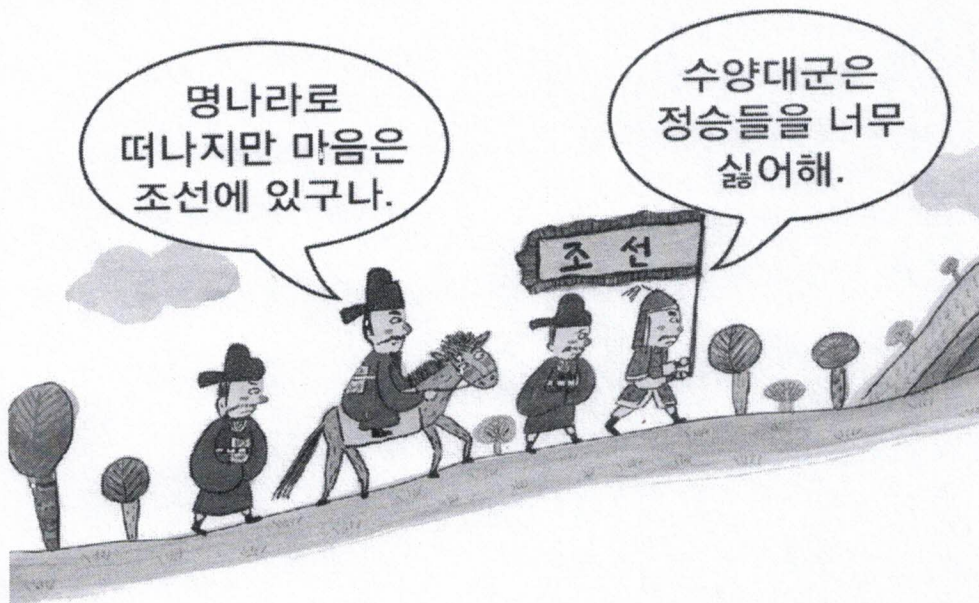
수양 대군은 두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 대군은 단종에게는 작은아버지가 되는 셈이었어요. 그런데 단종은 수양 대군만 보면 벌벌 떨며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단종이 수양 대군을 두려워하자 정승들은 대신들을 모두 자기 쪽 사람들로 채우고, 왕의 친족들이 궁궐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수양 대군은 그 동안 세종을 도와 나라 안팎의 일을 하면서 많은 업적을 쌓아 왔어요.

“아버님이 애써 이루어 놓은 태평성대를 어리석은 정승들이 망치도록 두고 볼 수는 없다.”

정승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수양 대군이 염려스러웠어요. 그래서 단종을 시켜 수양 대군을 명나라에 사신으로 보냈어요. 수양 대군은 그런 정승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명나라에 다녀왔어요. 물론 돌아오는 그의 가슴 속에는 온 나라에 피바람을 몰고 올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

조선 시대에는 많은 식구들이 한 집에 모여 사는 대가족 제도였어요.

많은 가족이 모여서 살다 보니 가족을 이끄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는 주로 집안의 어른인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맡았어요. 그리고 대가족 제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바탕은 유교의 가르침이었지요. 유교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 두는 효행과 정절, 어른에 대한 공경 등은 많은 가족들을 흠어지지 않도록 묶어 주는 끈이 되어 주었어요.

2. 계유정난

“먼저 김종서를 없애야 하옵니다.”

“웁습니다. 김종서를 없앤 다음에는 그와 함께 역모를 꾀했다는 핑계로 안평 대군을 없애야 합니다.”

수양 대군의 주위를 맴돌며 일을 꾀하던 한명회와 권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획을 끝낸 수양 대군은 김종서의 집으로 갔어요. 김종서의 집에서는 그의 아들인 김승규가 수양 대군을 맞았지요. 김승규는 수양 대군을 김종서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대감과 단 둘이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 주시게.”

수양 대군의 말에 김종서가 아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괜찮으니 물러가거라.”

김승규가 방을 나가고 난 뒤 수양 대군은 품 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놓았어요.

“이게 무엇ियो?”

“펴 보시면 압니다.”

김종서가 편지를 꺼내 호롱불에 비춰 보았어요. 순간 우람한 체격의 장정들이 방으로 뛰어 들었어요.

“아니, 네 놈들은 누구냐?”

김종서가 호통을 쳤지만 다음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장정들이 쇠망치로 김종서의 뒤통수를 내리친 거예요.

“모두 없애라!”

수양 대군은 그 날 군사들을 풀어 김종서의 아들과 하인들을 죽이고는 곧바로 궁궐로 갔어요.

“김종서와 황보인, 그리고 안평 대군이 역모를 꾀해 할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단종은 수양 대군 앞에서 벌벌 떨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김종서는 제가 먼저 없었으니 안심하시고, 어서 대신들에게 궁궐로 들어오도록 명을 내리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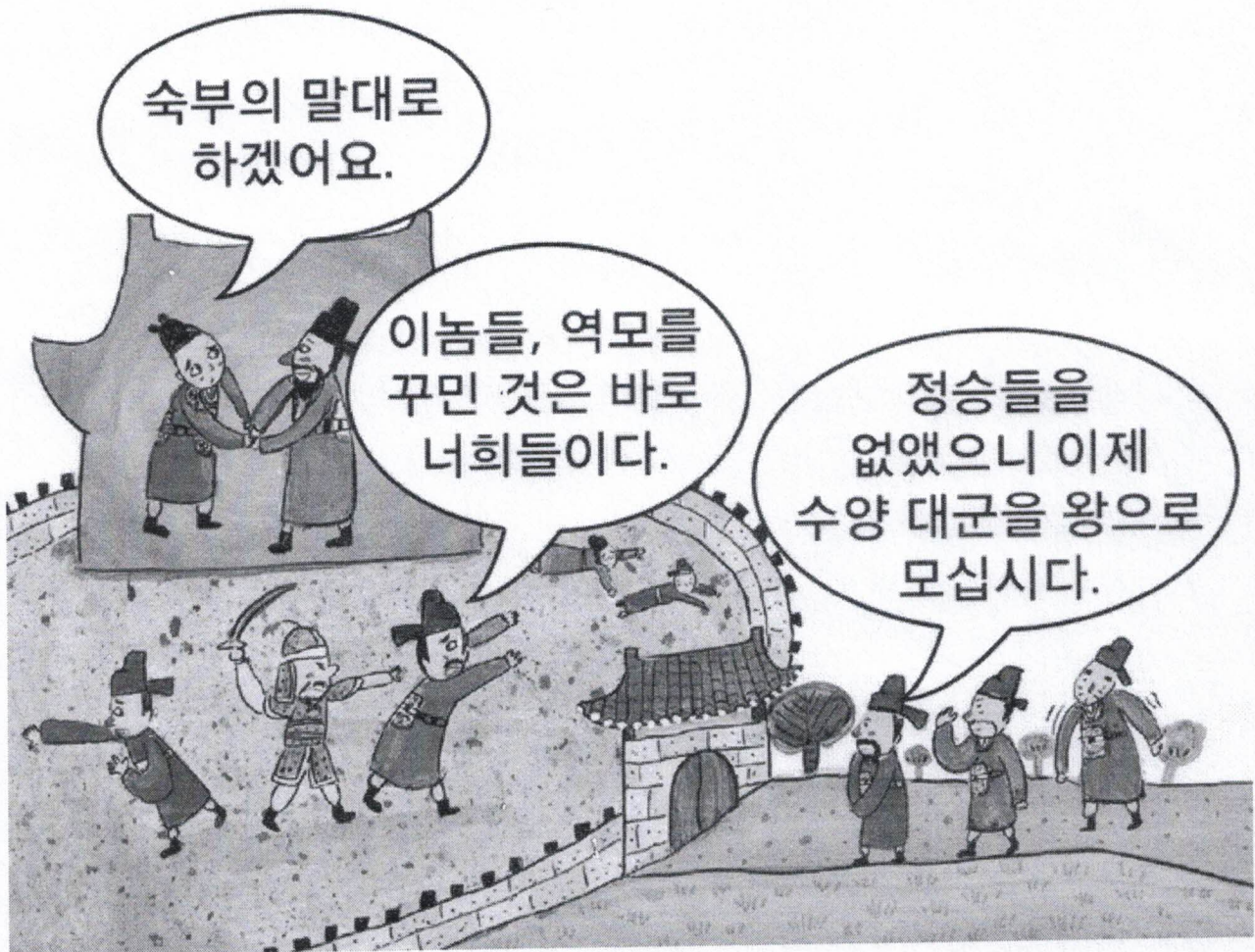
하늘처럼 믿고 있었던 김종서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단종은 겁에 질려 수양 대군의 말을 그대로 따랐어요.

“숙부의 말대로 하겠소.”

곧 왕명을 받은 대신들이 햇불로 환하게 밝혀진 궁궐로 들어왔어요. 수양 대군은 그들 중에서 단종과 가까웠던 대신들을 없앴어요. 먼저 영의정 황보인이 죽음을 당했고, 이어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많은

대신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수양 대군은 자신의 동생인 안평 대군도 강화로 귀양을 보냈다가 죽였어요. 이것이 단종 1년(1453)에 일어난 계유정난이에요.



계유정난 이후 권력을 잡은 수양 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중요한 벼슬자리를 모두 자신이 차지했어요. 또 자신을 도와 반대 세력을 몰아 내는 데 공을 세운 한명회, 권람, 정인지, 최항 등을 1등 공신으로 올렸어요.

공신은 나라의 큰 일에 공을 세운 신하를 일컫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가 올린 공신의 이름 중에는 계유정난과 아무 관계도 없었던 성삼문도 끼어 있었어요. 이렇게 수양 대군과 몇몇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생긴 계유정난은 이후 수많은 인재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계기가 되었어요.